

가족공유활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양 지 훈(대구대학교 석사과정) · 조 희 금(대구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의 가족공유활동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며, 이러한 가족공유활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추후 가족친화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족공유활동의 필요에 대한 정책제안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원자료(raw data)는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가족실태조사로서 전국 가구주 및 가구원 4,754명이 응답한 가구대표 설문지와 가구원 설문지를 가구 코드에 맞추어 코딩하였으며, 무응답을 제외하고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상태의 부부에 해당하는 2,98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가족공유활동은 김정옥과 구향숙(2002)의 구분을 참고하여 2인 이상의 가족원이 참여하는 가족공유가사활동, 가족공유식사활동, 가족공유여가활동로 총 7개 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행복감을 측정하는 척도는 주관적 행복감, 가족의 건강성, 생활만족도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통하여 대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신뢰성 분석을 통하여 각 변수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t-test, ANOVA, 회기분석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 행복감은 여가활동(배우자와의 대화활동, 평일여가활동, 주말여가활동), 식사활동(식사, 외식)과 부부공평도의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러나 가족공유활동 중 가사활동(소평, 자녀돌봄활동)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평일 여가활동과 주말여가활동, 부부의 공평도 의식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족공유활동을 권장할 때 가사노동의 참여와 함께 여가활동의 공유가 행복감을 높이는데 더 유용함을 시사한다. 둘째, 평일의 가족공유 여가활동은 행복감을 낮추고 주말의 가족공유 여가활동은 행복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시간사용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평일 여가활동을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직장환경의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족공유활동별 행복감의 차이에서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활동에서 활동이 많을수록 행복감은 높았으나 한 활동에 시간이 많이 투입될 경우 오히려 행복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돌봄 등에서 시간투입이 많이 필요할 때, 가정이 그 역할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보다 사회적인 지원이 주어질 때 행복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자녀돌봄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넷째, 부부 공평도의 의식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의 공평도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성평등한 부부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가정생활 교육 프로그램이 유용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정책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기혼자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가족공유활동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원자료를 분석한 것으로서 영향 변수를 추출하는데 제한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삽입된 변수 외에 기존 연구에서 영향변수로 나타난 다른 요인들을 포함한다면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